



금속활자 발명국 걸맞는 제책기 생산

이젠 세계와 견준다

1980년대 중반은 국내 제책 기술이 담보 수준을 면치 못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인쇄 후가공 분야의 흐름을 읽고 '순수한 국산 기술로 제책기를 만들어 보자'는 모토로 설립된 업체가 있다. 정합, 무선, 삼면 재단기 전문 제작 공급업체인 (주)선원 · 동출(대표 이원근)이다. 최근 (주)교학사에 독일의 KOLBUS 제책 라인을 구축하며 제본 시장에서의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이 업체는 현재 자체 제작한 제책기 공급뿐만 아니라 일본동경출판기계(주)의 'TSK' 제책 라인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국내 제책 산업을 선도

지난 1986년, 한국동출라는 상호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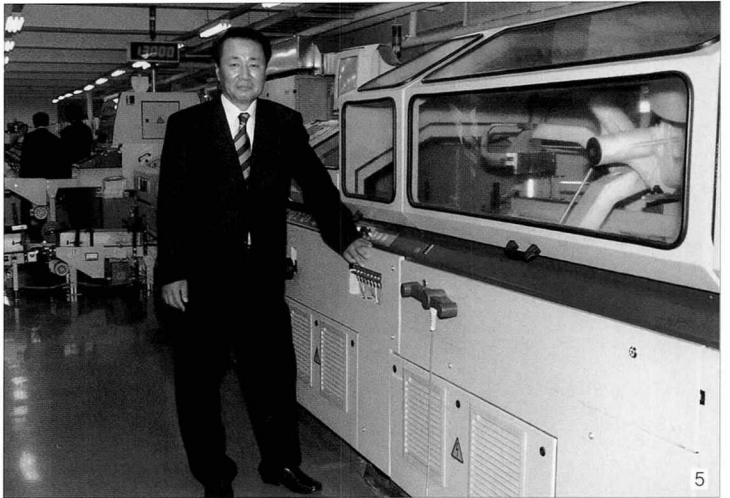
책기 시장에 뛰어든 이 업체는 정합에서부터 무선, 삼면 재단으로 이어지는 제책 라인에 대한 국내 기술력이 세계 시장과 견주었을 때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 독일(KOLBUS)과 일본(TSK)의 양장 기술에 대한 D/B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당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독일이나 일본은 양장 부문의 인쇄 후가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위치에 올라 있었다.

이 사장은 “물론 당시에는 책을 붙이고 썬우는 작업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만 보유하고 있어도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며 “하지만 국내 인쇄업도 언젠가는 소량 다품종으로 변해가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첨단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인쇄물들을 접해봐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발품을 아끼지 않고 국내 · 외에서 출간되는 책자 및 앨범에 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1982년에 설립돼 국내에 'TSK' 제본 라인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었던 선원상사가 큰 힘이 됐다. 여러 경로를 접하다 보니 제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기 및 책자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선진화된 수의 구조를 바탕으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끊임없이 제책 부문의 연구 개발에 진력을 쏟아 오던 이 업체의 운영에 차츰



1. 'KolBus' 제책라인 2. 제책라인을 통해 출시되고 있는 인쇄물 3. 치밀함과 꼼꼼함은 제책라인에서 필수사항이다. 4. 삼면재단기로 이어지는 무선철라인 5. 이원근 사장의 철학은 '현장경영'이다. 위 사진들은 (주)교학사에 설치, 가동중인 KolBus 제책라인이다.

변화가 생겼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차츰 제책 업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 경쟁자들이 생기니 인쇄 후 가공 분야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됐다. 그만큼 국내 인쇄·출판 시장이 양과 질적으로 성장세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 드물었던 제책 업체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수요가 일정 선상에 올라서자 이 업체에는 제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합기 등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꺼운 양장본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과 다양한 제책 라인을 구비하고 있던 업체는 국내에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주문과 함께 사후관리도 중요한 운영상의 변수로 찾아왔다. '고객은 내 구성을 가장 중시한다'라는 이 사장의

경영 철학이 한몫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업체라도 제품의 하자 및 소모품 관리에 대해 문의해 오면 발품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

때문에 (주)선원·동출에 문의하면 "제책 라인에 대한 모든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구입한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연결시켜 줬다. 이렇다보니 운영상에 한결 여유로움이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사후관리에 더 많은 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설계도 개발 및 연구 개발에 충당되는 비용도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

맞춤형 제본 라인 공급

1997년, 한 국가를 도산의 위기로 몰아

넣은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체의 피해 규모는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극복하게 된다.

바로 한 단계씩 착실히 쌓아온 밑바닥 경영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 결제일은 반드시 지키고 납기일에 맞춰 기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50여명의 직원이 혼연일체로 뭉친 결과였다. 한 번의 위기를 넘기니 자연스럽게 기종의 고급화를 선언하며 2차 도약을 선언한다. 1998년, 제책기 수출·입 라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선원상사와 순수한 국산 제책 기술을 구축하고 있었던 한국동출은 (주)선원·동출로 합병하며 다시 태어나게 된다.



첨단 제책기 공급에 주력

현재 이 업체가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책기는 독일의 'KOLBUS'와 일본 동경출판기계(주)가 출시,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TSK' 제책 라인이다. 시간당 1만5장천의 회전 속도를 자랑하는 KOLBUS는 어떠한 인쇄 물량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용지 두께 조절에 대한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또 조작 장치의 집약화로 작업 시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합, 무선, 삼면으로 이어지는 제책 공정의 핵심은 바로 정확성이기 때문이

다. 게이지에 나타나는 회전수로 현재 작업량의 속도 및 납기일이 파악된다. 따라서 라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장들의 관심을 한곳에 모아 집중력이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TSK'는 제책 라인의 전자동화를 실현했다. 컨트롤 패널, 메뉴 선택, 당일 작업 메뉴 등 일련의 작업 공정 지시 사항이 토털 인쇄 시장의 워크플로에 적합한 구동성을 보유할 수 있게 설계된 기종이다. 전 자동 공정을 통해 인력 낭비와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토털 인쇄업을 추구하고 있는 업체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선진화된 제책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주)선원 · 동출이 추구하는 점이 있다. 바로 중고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15년이 보통 제책기의 수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베어링 등 적당한 부품 교환과 도색 작업을 통해 시장에 다시 나오면 작업자의 안전위험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제책기의 국산화 선도

이 사장은 선원상사의 대표로 재임했던 시기를 포함해 만 23년이 지났지만 제책기 부문이 항상 새롭다고 한다. 바로 황무지와 같았던 국내 제책 기술과 함께 해 온 시간들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아직 더 개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거쳐 나간 제책기만 해도 500여대. 인쇄 업체에서 요구하는 제책 라인의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자동화 및 다양한 용지의 작업물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제책기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그는 전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된 나라답게, 노하우가 축적된 국산 제책기 출시만이 상품성을 최상으로 끌어 올린 고품질의 책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바람은 간단하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동등한 제책기를 직접 제작해 국내에 공급하는 것. 이로 인해 인쇄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된 출판, 포장,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제조업도 동시에 커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인쇄업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 하나로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노력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순수한 국산 기술이 가미된 인쇄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돼야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건이 되고 힘이 닿는 한 제책기의 국산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장홍일 기자)